

‘혁신’ 외치던 새정치 비대위, 벌써 전대 룰싸움?

문희상 “모바일 투표 만큼 공정한 게 어디 있느냐”

박지원 “이미 폐기된 것...문 위원장 말조심하시라”

정동영·천정배 “전당원 투표” 주장... 또 계파간 내용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자마자 전당대회에서의 지도부 선출 룰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당장 당 내외에서는 엄불(혁신)보다는 잣밭(당권)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냉소가 터져 나오고 있다.

경선 룰과 관련한 신경전의 발단은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발언에서부터 시작했다. 문 위원장이 지난 2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모바일 투표가 문제 있는 게 아니다. 모바일이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말한 뒤, “모바일로 한꺼번에 전 국민에게 뽑아달라고 하면 끝인데 그것만큼 공정한 게 어디 있느냐”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제는 모바일로 하면 특정 계파가 유리하다는 전제와 개표할 때 확인 작업이 까다롭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논란이 된 것”이라며 “그 문제만 풀고 여야가 법률로 제정하면 그처럼 간단명료한 게 어디 있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비대위원이자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고 있는 박지원 의원은 23일 “비대위가 출범하자마자 이렇게 예민한 문제가 제기되면 비대위가 제 구실을 하기도 전에 전당대회 문제가 불거진다”면서 “나는 모바일 투표제에 반대하며 그 제도는 이미 폐기된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서도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게 공·사석에서 발언을 조심하라고 말씀 드렸다”며 문 위원장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여기에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공직제도 개혁과 관련,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언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결국, 시민들의 참여가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모바일 투표제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정동영 고문과 천정배 전 의원 등은 꾸준히 전당대회 지도부 선출에서의 ‘전당원 투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당내의 100만 당원과 수십 만의 권리당원들이 모두 다 투표에 참여하는 정당한 보통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모바일 투표를 두고 민감한 반응이 나오는 것은 그동안의 각종 선거에서 모바일투표가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 그룹에 가장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지난 2012년 1월과 6월 당 지

도부 선거와 9월 대선 경선에서 모바일투표제를 적용했다. 그 결과, 1월과 6월에 각각 한명숙, 이해찬 의원이 당 대표가 됐으며, 9월에는 문재인 의원이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친노 그룹이 당 핵심 세력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은 바 있다.

이에 반해 대중적 인지도에 비해 당내 기반이 비교적 탄탄한 타 당권 주자나 계파에서는 당원 중심의 경선 룰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전당대회 경선 룰이 모바일 투표와 당원 참여 등이 혼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각 계파 수장들이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절충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새정치연합의 전당대회 경선 룰 논란에 대해 비대위가 제대로 된 혁신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당대회 경선 룰과 같이 혁신안도 각 계파의 입장에 따라 상당한 내용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같길 먼 국회정상화

여야 원내 지도부

“아직 만날 계획없다”

여야 대표가 정기국회의 빠른 정상화 필요성에 뜻을 모았지만 이를 실현할 여야 원내 지도부 간 협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3일 약속이나 한 듯 아직 서로 만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원내 수석부대표 수준에서 사전 접촉을 한 후 다음 협상 행보를 정한다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양측 원내 지도부의 입장도 협상제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거취 문제로 파장을 일으켰던 박영선 원내대표의 임기가 ‘한시적’이고 당내 구성원들의 전적인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점을 거론, ‘협상 주체의 대표성’ 문제를 들어 본격적인 협상에 신중을 기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또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분리해 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동시에 세월호법에 대한 당론을 먼저 정해야만 협상이 진척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원내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답변이나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신 이르면 24일 세월호 유족들을 먼저 만나 의사를 듣고 나서 향후 진로와 행보를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 관계자는 “(원내 지도부가) 유가족을 먼저 만나야 할 것 같다. 유가족의 뜻을 정확히 알아봐야 한다”면서 “내일쯤 유가족을 만날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무려 4주째 이어지고 있는 국회 공전 사태가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날도 삼일특별로 당정 협의를 진행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등 야당이 의사일정에 계속 불참할 경우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기 위한 사전 정치작업을 계속했다.

새정치연합은 공식 회의석상에서 여야 협상과 관련한 주제는 배제하고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새해 예산안과 세계 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 “아직 12척의 배가...”

野비대위 첫 외부행보...현충원 참배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23일 출범 후 첫 외부 일정으로 현충원을 찾았다.

이날 방문에는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박영선 원내대표, 문재인·정세균·박지원·인재근 의원 등 비대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문 위원장은 방명록에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중 선조에게 올린 장계에 나온 “**今臣戰船尙有十二**(금신전선 상유십이·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남겼다.

비대위원들은 현충탑 참배에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했다. 이 자리에는 김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와 아들 흥업·흥결씨, 권노갑 상임고문, 정균환 전 의원 등이 동행했고, 이후 비대위원들은 이 여사와 오찬을 함께했다.

문 위원장은 참배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김 전 대통령을) 뵈기가 너무 부끄럽다”며 “그분의 리더십과 정치철학이 당을 있게 했다. 새록새록 그립다”라고 말했다.

다만, 문 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은 아직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 참배 계획은 세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은 “당을 살리는 것이 시급하지 않리적인 일에 치중할 때가 아니다”며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에게 당이 비상상황이어서 가지 못한다고 연락을 드렸다. 이 여사도 ‘합내서 열심히 하라’고 화답했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DJ묘역 참배

이희호 여사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 비대위원 등이 23일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 고(故) 김대중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경태 “새정치 제1과제는 친노 강경파 몰아내는 것”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 또다시 친노(친노무현) 강경파를 향해 독설을 퍼붓고 나섰다.

조 의원은 23일 “지금 비대위는 친노 강경파의 들러리가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비대위 전면 재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자청, “특정 계파의 패권세력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게 짙어 있다”고 비난한 데 이어 “친노를 직접 거론하며 공격의 목표를 정확히 밝힌 셈이다.”

앞서 조 의원은 전날 교통방송의 ‘퇴근길 이철희입니다’에 출연, “우리 당이 일소해야 할 가장 첫 번째 과제가 패권화돼 있는 친노 강경파들을 몰아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의 미래에 대해서 “친노 강경파와 함께하는 정당의 모습에는 미래가 없다”면서 “전면적이고 파괴적인 재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당정, 노후 상수도 보수 비용 국고 지원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노후 상수도 보수 비용을 내년 예산에서 추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환경부와 정책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당정 간담회에서 내년 환경예산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노후 상수도 개량을 위한 국고지원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노후 상수도로 연간 5000억원의 예산 누수가 발생하고 있고 단순한 모래여과 정수장으로 수돗물의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수도관 공급에 있어 동능격차가 점점 벌어지며 농어촌 주민들의 불복지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예쁜사람은 많다
돈 많은 사람도 많다
정신이 맑고 마음이 예쁜사람도 많았으면 좋겠다.
나눔과 배려가 세상을 바꾸듯이
신협이 예금과 대출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 비과세 예금 3,000만원 (1인당 예금보장 5,000만원)
- 대출최고한도 28억원 (최저금리 3.8%)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금호지점/중앙지점

2013년도 경영평가 최우수금고 선정

2013년 서양새마을금고 사랑 나눔
날짜: 2013년 12월 26일 장소: 남구문예회관

홍도리쌀 장학금 소화기 500개, 2,400만원, 100대
다문화 가정 지원금 100만원, 100명

이사장 안두경 전무 하현준

2013년
금고자산 → 2,607억원
당기순이익 → 15억3천만원
출자배당금 5%
배당금 → 5.0% (현재 정기예금 금리 1년 3%)

서양새마을금고
본점 671-5000 양림지점 652-9203 주유지점 720-2880 월산지점 364-7557

제5회 자동이체 행운이벤트

5,000만원 경품 1,479 분께 드리는 특급 이벤트!!

경품추첨일 2014년 10월 26일(일) 오후 2시 빛고을시민문화관

신청기간 2014년 10월 24일까지
응모대상 행사기간내 자동이체 3건 이상 신청, 기존유지고객
응모권교부조건 자동이체 3건당 1대 교부

경품안내

1등 50인치 벽걸이 TV 3명	5등 자전거 12명
2등 드럼세탁기 3명	6등 생활용품세트(대) 90명
3등 세습기 9명	7등 생활용품세트(중) 150명
4등 쿠키압력밥솥 12명	8등 이차상 1200명

※동급사은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6등까지는 참석자 본인에 한하여 경품지급합니다.※중복당첨시 상위 상품으로만 지급합니다.
※경품행사는 응모한 회원에 한하여 추첨합니다.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671-5000 (KBC광주방송국 앞) 양림지점 652-9203 (기동병원 아래) 월산지점 364-7557 (대성초교사거리)